

# “부처님 법따라 자비·행복 추구”

## ‘세계평화를 위한 2차 불교도대회’ 발표 러시아·인도·프랑스 불교 복지 환경운동 실태

구랍 24일부터 28일까지 타이완의 수도 타이베이(臺北) 근교에 있는 보련사(寶蓮寺)에서 ‘세계평화를 위한 제2차 불교도대회’가 열렸다. 한국을 비롯 오스트레일리아, 방글라데시, 캐나다, 프랑스, 독일, 홍콩, 말레이시아, 네팔, 러시아, 스리랑카, 타이완, 미국, 베트남, 인도 등 16개국의 스님과 재가불자들이 참여했다. 세계 평화를 위해 불교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각국의 불교도가 서로 연대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인류의 최대 현안인 자연 생태위

기, 전쟁과 빈곤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이다. 참가자는 스님, 사회활동가, 불교학자 등이었고 각 나라별로 불교현황과 사회를 위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노동자마을, 불교환경교육원, 불교자원봉사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프랑크 테데스코 교수(세종대)가 참여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김동훈 경부원운영위원장을 통해 대회에서 발표된 러시아 인도 프랑스의 불교 복지·환경운동 실태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다 중요한 곳이다. 그들은 생태보호 문제에 불교가 정신적 측면과 행동덕목에 있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인도** 불교의 기원지인 인도는 힌두교와 카스트 관습 때문에 지난 1천년간 불교의 불모지였다. 56년 10월 위대한 인도 민중



김동훈 (경부원 운영위원장)



◇ ‘세계평화를 위한 2차 불교도대회’에는 16개국 스님·재가불자가 참여 “우리는 부처님 법 따라 자유와 행복을 찾는다”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더 많은 사람의 복지를 위해”라는 모토를 가진 히타이는 교육기회를 상실한 빈민가의 어린이를 상대로 운영하는 49개의 유치원과 소녀들을 위한 비정규교육기관(예를들어 남아잡기를 하는 소녀들), 어린이 도서관, 탁아소, 여성 자립을 위한 봉제학교 등을 운영하면서 동료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사는 천민들의 보다 나은 삶과 사회개혁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프랑스** 프랑스를 대표한 베트남 출신의 티치후엔 비(Thich Huyen-Vi)

구랍 25일, 대회 기간에 맞춰 대만 보련사에서 새로 지은 불사리탑 낙성식이 있었다. 네팔에서 고승종의 한 분인 초기 트린첸 린포체(Chogyi Trinchen Rinpoche)가 승려들을 이끌고 참석하여 전통 티벳의식으로 행사를 주관했다.

티벳에서 태어난 그는 7세 때 출가하여 많은 공부와 수행을 한 14대 달라이 라마의 세 스승 중의 한 사람이라고 한

### 러 불자 1백만명...바이칼호 생태계 보존 앞장

### 인 사회교육센터 히타이운영 ‘더 나은 삶’ 모색

### 프 개발·정복등 지양...생명존중 인성회복 중시

다. 원형 사리탑 안 불단 정면 유리판에는 오색 찬란한 부처님 진신사리, 가섭존자 사리, 금강사리, 나한 사리 등이 봉안돼 참배할 수 있었다.

전국에서 버스를 대절해 온 불자들이 새벽부터 경내는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불자 모두에게 3과씩 사리를 나눠줘 사리가 중요한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러시아** 3백년 전 티벳과 몽고로부터 불교가 전래했고

1917년 공산혁명 전에는 70여 개의 사원과 4만명의 스님이 있었다. 1930년대 초에 모든 절은 파괴되고 스님들은 죽거나 피신했으며, 1946년에 두 개 사원이 다시 문을 열 수 있도록 당국이 허가했다.

지난 5년간 불교가 부흥하여 지금은 50여개의 사원과 1백만 명의 불자가 생겼고 53명의 스님이 해외유학 중이며 150여명이 국내에서 불교교육을 받고

의 지도자인 암베드카르박사(Bhimrao Ambedkar)에 의해 50만명의 불가족 천민이 불교로 개종하면서 비로소 불교가 고향에 되돌아왔고 지금은 불자가 2천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불가족 천민으로 태어나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인도 독립 후 초대 법무장관이 된 암베드카르 박사는 미신과 계급차별을 인정하지 않는 불교가 오랜 관습에 쩌든 인도사회를 변화시켜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스님은 석가모니는 모든 인류의 행복과 선을 위해 태어났으며, 비폭력과 자비, 범인류적인 사랑, 불법의 가르침을 통한 인성의 변화가 세계 평화를 건설하는 선결조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간성이 세계 운영을 결정짓게 될 것이며 대규모의 개발과 정복은 지구를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한다.

끝으로 이번 대회에서 세계평화를 위한 선언문을 채택했다. “우리는 부처님의 법에 따라 자유·선한 삶·자비심을 수행하고 최고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교육제도 개선을 통해 불공정하고 폭력적인 사회구조와 국제경제 질서를 개혁한다. 참가자와 각국 불교지도자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연대하여 세계 만방에 불법을 포교할 것과 인류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 함께 일하기를 기원한다.”

### 만화 법구경

\* 성념의 장 \*  
진실로써  
거짓을  
이기라

이항원

모두 2만원입니다. 영! 영! 영! 영!

요녀석 잡았다 빌 훔쳤어

매일 물건이 없어진다 했더니 네놈 것이구나

아저씨 거기 전화로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김양 무슨일이야 왜그래?

도둑놈 잡았어요

요...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너같은 놈은 혼 나봐야 해

이게 갖고 싶을 말은 하지 왜 그냥 가지고 가려 했어?

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누구한테 선물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었던 게로구나

김양아 이거 예쁘게 포장해 줘라

아...아름다 그 예쁜 도둑놈이란 말예요

그냥 갖고 가는 것보다 예쁘게 포장해 가지고 가는 게 좋을거야

다음에도 필요한게 있으면 얘기 하려나

은화한 마음으로 성념을 이기라 착한 일로 악을 이기라 배푸는 일로써 인색함을 이기라 진실로써 거짓을 이기라

저런 애들은 경찰에 넘겨 버릇을 고쳐줘야 한다고요

뭔가 부족해서 그런 것들을 텐데 따듯이 감싸줘야지

경찰에 넘겨 버릇을 고쳐줘야 한다고요

그렇다고 그냥두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될 수도 있다고요

그만 가서 김양도 점심이나 먹고 와

영! 영! 영! 영!

아까 그녀석 인대요

두고 간게 뭐죠?

글세 뭐까?

아니!

여기서 가져간 것 모두 도로 갖고 왔나봐

세상에...

김양 말대로 경찰에 넘겼을 물건도 이인도 다 잃으면 한 것 아니잖어

진실을 말하라 성내지 말라 가진 것이 적더라도 누가 와서 빌거든 선뜻 내어주라 이 세 가지 덕으로 그대는 신들 결로 간다

제 생각이 좀...

### 〈대중불교〉를 만나고서야 나는 마침내 말씀의 꿈틀이는 맛을 느낄 수 있었다!

골은소리  
불가의 잣대는 언제나 부처님 마음입니다.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대중불교〉는 그 잣대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시사, 사회소식, 귀담아듣고 새겨볼 이야기, 연중기획, 특별기획...

깊은 풀이  
해석이 없는 경전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옛것을 옛것으로 놔두지 않고 현실로 끌어와 오늘을 움직이게 합니다.  
수행칼럼, 세계의 신지식, 에세이 보살불교, 불교교리 산책, 법담이야기, 불교와 민속, 일과 문화, 폐사지를 찾아서...

넓은 만남  
경전이 인도하는 길은 언제나 곧장 부처를 만나는 길입니다.  
내가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불교방송교재 경전강의, 교리강좌, 불교 영어 한마디

정기구독문의: 전화(02)773-5731, 752-7047, 754-1614  
팩시밀리(02)771-5796

### 밀교학의 근원과 최신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밀교학 입문서

# 밀교학 입문서

밀교의 근원 특히 인도교 단트라와 불교 단트라를 비교분석해 놓은 밀교학 입문서이다. 밀교의 역사적 생성과정을 인도고대문화와 결부시켜 상세히 언급하고 특히 인도교와의 상호연관성에 관하여 상세히 분석해 놓은 원저자 이후 최근까지 30여 년의 연구성에 따른 학계의 다양한 학술을 깨 실어 20세기 이후 밀교학 연구의 진척과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오늘날 인도의 일상생활과 풍습 및 관습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문화이며 인간의 정신적 완성과 심적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인 밀교의 역사적 생성과정과 인도의 고대문화, 그 정신세계를 체계적으로 탐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신국판 284면 값 6,000원

최신간 中論頌研究 ● 김인덕 지음/양장/376면 값 12,000원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160-1 전화 420-3200, 3300 / 팩시밀리 420-3400